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

장영은¹⁾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가정환경이 유아기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 중 어린이집 교사가 응답한 또래관계 자료가 존재하는 800 가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800명 유아의 평균 월령은 38.24개월이었다.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긍정적인 가정환경 구성을 예측하였다. 유아의 가정환경이 인지적, 언어적 자극과 반응성 등을 제공할수록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공격성 및 위축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또래부적응행동을 잇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양육행동은 보다 나은 가정환경을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또래부적응행동,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양육행동, 가정환경

I. 서론

만 3세에서 4세에 이르는 시기에 유아는 의미있는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Bohlin, Hagekull, & Rydell, 2000). 이 시기 유아의 자아인식은 더욱 발달하게 되고, 점차 독립심이 발달하는 동시에 감정표현에 있

1)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어 점차 자기조절능력이 더 생기게 된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 및 가족 원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범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Hay, Payne와 Chadwick(2004)에 따르면, 또래관계는 생후 1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며, 만 3세에 이르렀을 때는 특정 친구에 대한 선호 및 관계를 맺는 방식의 개인차가 관찰된다.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즐기게 되고, 또래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고, 언어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워간다(문혁준, 김경은, 서소정 외, 2014).

특히 어린이집과 같이 유사한 연령대의 또래들과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유아는 자기절제와 조절능력을 기반으로 또래관계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요구와 직면한다. 또래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아직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은 공격성이나 위축의 성향을 보이게 될 수 있다(Hendrick & Weissman, 2010). 이 때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또래 간, 그리고 교사-유아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보육환경에서 경험하는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는 다른 영역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또는 사회적 유능감의 부족으로 무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관심있는 또래 간의 놀이에 진입하거나, 적극적으로 놀이를 유도하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될 경우에도 유아의 건강한 사회성 및 정서발달은 위협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정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행동 및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의 특성을 통해 또래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관계 적응 또는 부적응을 위한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가지는 영향력은 지속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Russell, Pettit와 Mize(1998)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크게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경로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맞는다고 판단되는 또래집단을 찾아주고, 또래관계와 관련된 조언을 하고, 또래관계에서 보이는 자녀의 행동을 고쳐주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 경로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양육스타일과 상호작용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가 또래와 가지는 관계의 본보기가 되는 방식이다. 즉, 간접적인 경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은연 중 전달해주는 상호작용의 기술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이 자녀의 또래관계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arson과 Parke(1996)의 연구에서 부모

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가족의 경우, 학령전기 자녀의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이나 또래로부터의 배척이 더 빈번히 관찰되었다. 부모의 직접적인 또래관계 전략의 교육이나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사회화의 경로 외에도 부모-자녀 애착으로 또래유능감을 설명한 연구도 존재한다 (Micheals, Grietens, Onghenaet, et al., 2008; 이영·나유미, 1999). 이들은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또래유능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애착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Coleman(2003)에 따르면 유아기에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 또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적 정서, 공격성, 위축, 낮은 자신감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Casas, Weigel, Crick 등(2006)은 불안정애착과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신체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임연진, 2002),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자녀의 또래인기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이 밝혀졌다(문혁준, 2000).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격려할 때,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이며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주고받는다(박주희와 이은혜(2001)의 연구결과 역시 양육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입증한 기존의 국외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또래관계 특성을 연결하는 접근방식에서 이론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근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자녀의 또래관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처럼 어머니 양육의 다양한 측면, 즉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 및 온정적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자녀의 사회적 관계를 격려하고,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회적 양육행동(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et al., 1996)이 유아기 자녀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과 또래관계의 적응 또는 부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에 국한되어 예측변인을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적 부분 외에 가정환경이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바람직한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 여부도 연구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Zimmerman, Glew, Christakis 등(2005)은 유아기에 가정환경에서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후

또래에게 배척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밝혔다. 유아의 언어 및 인지적 능력을 자극하는 가정환경은 또래관계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유아들은 최소한의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에서 장난감 등을 둘러싼 소유의사를 표시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유아의 공격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Dionne, Tremblay, Boivin, et al., 2003; Hay, Castle, & Davies, 2000). 즉 보다 온정적이고 인지적·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은 정서조절이나 언어발달 등 유아기 중요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지지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유아기 가정환경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가 어린이집 상황에서 보이는 또래부적응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과 동시에 자녀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또래부적응의 예측변인으로 연구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환경의 질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특정 생활경험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조합으로 정의하거나(Bradburn, 1969)도 있으며, 생활만족도로 주관적인 안녕감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Sauer & Warland, 1982). 한편,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아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역시 다양한 요인을 사용해 측정되어 왔다. Kersh, Hedvat, Hauser-Cram 등(2006)과 Mistry, Lowe, Benner 등(2008)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효능감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였다.

Abidin(1990)에 따르면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단순히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등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한 가정환경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라고 보았다(Abidin, 1990). 많은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우울(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이정윤·장미경, 2009; Fendrich, Wamer, & Weissman, 1990; 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Lovejoy, Graczyk, O'Hare, et al., 2000), 양육스트레스(신숙재·정문자, 1998; Crnic & Low, 2002; McLoyd, 1990), 그리고 효능감(김현지·정경아, 2011; 남궁령,

2014; Mistry, Lowe, Benner, et al., 2008)의 유의성을 밝혀왔다. Adamakos(1989)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만 2세의 자녀에게 더 낮은 수준의 자극을 주었다고 밝혀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이고 자극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양육행동이나 환경에서 유아의 발달을 지지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 이상으로 확대해가는 발달적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이 최소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내면적인 상태를 반영하므로, 직접적으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녀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양육행동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의 차이와 같은, 보다 근접적인 과정(proximal process)를 거쳐 간접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Mistry, Lowe, Benner 등(2008)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실제와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며, 발달의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행동적인 측면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거쳐 유아의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다음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 연구가설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예측할 것이다.
- 연구가설 3.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질은 유아의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자료 중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도 5차년도 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매해 아동, 어머니, 가구 특성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구와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예비표본 2,562가구를 모집하고 이 중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도에는 2,150 가구, 2차년도에는 1,904가구, 그리고 3차년도에는 1,802가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총 1,754가족 중 유아기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교사가 자료수집에 동의하여 교사 평정 또래상호작용 자료가 있는 800명의 유아와 이들 어머니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800명의 유아 중 405명이 남아, 395명이 여아였으며, 평균월령은 38.24개월 (SD=1.44)였다.

2. 측정도구

가.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잠재변인은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세 변인으로 예측하였다. 어머니 우울은 Kessler 우울척도인 K6 (Kessler, Andrew, Cople, et al., 2002)를 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Andrew, Cople 등(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총 6개 문항의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91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 세 해외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양육현황에 맞게 개발한 도구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총 32문항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점에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의 높은 점수는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8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 Pearlin, Lieberman, Menaghan, et al., 198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총 4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높은 내적합치도와 비교적 적은 문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나.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등(1996)의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사회적 양육행동은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또는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5점 리커트척도로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반응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83).

다. 유아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Caldwell과 Bradley(2003)이 개발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의 하위변인 중 측정모델 검증을 통해 선택된 6개의 변인으로 대표되는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EC-HOME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및 수용성의 8개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와의 면접 및 관찰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과의 요인적재량이 낮은 물리적 환경과 모방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4-11개 문항, 총 55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EC-HOME의 하위척도별 재검사 신뢰도는 .76~.97로서 (김정미, 박금주, 2007) 국내외 연구에서 신뢰도가 인정된 척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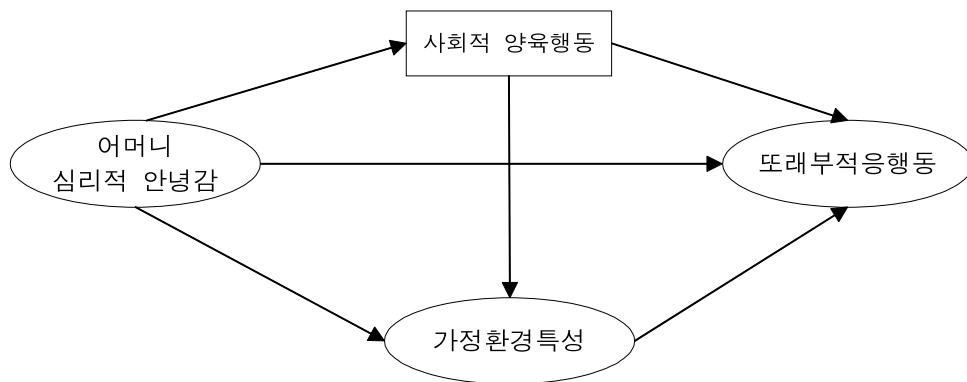
라. 유아 또래부적응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유아의 또래부적응 행동은 또래 상호작용을 평정하는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를 어린이집 교사가 응답한 자료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두 하위영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PIPPS는 세 가지 관찰 범주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에 대해 1점부터 4점의 리커트척도로 평가하는 평정척도이다. 그 중 놀이방해 하위범주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단절 하위범위는 또래와의 놀이 중 보이는 위축과 회피의 부정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교사응답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내적 일관성은 각각 Cronbach's alpha=.85와 .8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 ([그림 1])을 구성하고 AMO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개념적 모델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델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분석대상이 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분석변인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우울	6	30	11.89	4.56	778
양육스트레스	11	52	30.92	7.06	778
자기효능감	4	20	9.68	2.81	778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	17	45	34.04	4.54	778
유아 가정환경					
학습	1	11	8.91	1.23	800
언어자극	1	7	6.45	.81	800
다양성	1	9	7.59	1.32	800
수용성	0	4	3.22	.85	800
반응성	0	7	6.56	.96	800
학습자극	0	7	4.52	.93	800
유아 또래부적응 행동					
또래방해	3	37	19.24	5.08	771
또래단절	8	25	15.42	3.68	776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변인들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우울 $r=-.36$, 양육스트레스 $r=-.56$, 자기효능감 $r=.35$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은 가정환경 구성 변인과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내는 또래방해와 또래단절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양육행동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유아 가정환경 구성의 하위 요인들과는 일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변인 간의 상관관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우울	.48***	-.61***	-.36***	-.10**	-.13***	-.11**	-.10**	-.08*	-.12**	.23***	.27***	
2. 양육스트레스		-.47***	-.56***	-.12***	-.12**	-.14***	-.11**	-.11**	-.12**	.21***	.28***	
3. 자기효능감			.35***	.08*	.23***	.11**	.08*	.07*	.07	-.05	-.07*	
4. 사회적 양육행동				.16***	.13***	.16***	.08*	.16***	.14***	-.24***	-.33***	
5. 학습					.34***	.35***	.22***	.31***	.39***	-.08*	-.06	
6. 언어자극						.37***	.29***	.34***	.46***	-.10**	-.05	
7. 다양성							.42***	.39***	.32***	-.06	-.04	
8. 수용성								.29***	.33***	-.09	.03	
9. 반응성									.29***	-.10**	-.06	
10. 학습자극										-.09*	-.08*	
11. 또래방해											.58***	
12. 또래단절												1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델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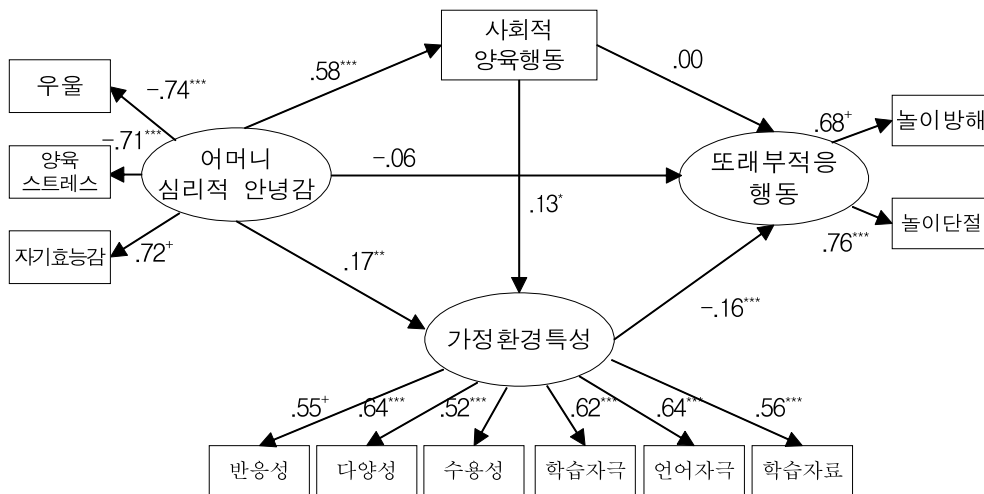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가정환경, 그리고 또래부적응의 구성이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된 측정요인에 의해 대표되는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측정모델의 검증 결과, $\chi^2(41) = 89.500$, $p < .001$, TLI = .957, CFI = .973, RMSEA = .038(.028~.049)로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모델적합도를 보였다. 잠재변인이 측정요인을 예측하는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52에서 .79 범위로서, 측정요인의 선정이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잠재변인이 이후 구조방정식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념적 모델의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개념적 모델에서 제시된 관계들을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적당하게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chi^2(49) = 194.956$, $p < .001$, TLI = .900, CFI = .931, RMSEA = .061(.052~.070)로서 χ^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모델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구조방정식

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만족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을 근거로 설정된 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르면, 우선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어머니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8, p<.00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의 가정환경 역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보다 나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기 자녀를 위해 보다 수용적, 반응적이며, 언어적인 자극 및 학습적 자극을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환경 조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beta=.17, p<.01$).



[그림 2] 유아 또래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모델의 검증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된 양육행동과 유아가정환경이 또래관계의 부적응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리라는 연구가설은 일부 지지되었다. 우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0, n.s.$). 반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가정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13, p<.05$). 즉, 어머니가 보다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 때에,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된 유아의 가정환경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적응행동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16, p<.001$). 유아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공격성이나 위축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6$, n.s). 이상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 가정환경 → 또래부적응행동, 또는 가정환경 → 또래부적응행동의 경로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관찰된 유아의 또래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가 경험하는 가족맥락의 요인들이 유아기 확장된 사회관계망의 초기 형태인 어린이집에서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만 3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의 질이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공격성 및 위축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가설은 분석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이는 양육행동과 유아가 경험하는 가정환경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때,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편일 경우,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사회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자녀에게 더 많은 언어자극 및 학습적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의 행동을 적극 수용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보여 보다 나은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밝혀온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남궁령, 2014; 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신숙재·정문자, 1998; 이정윤·장미경, 2009; Crnic, Greenberg, Ragozin, et al., 1983; Crnic & Low, 2002; Lovejoy, Graczyk, O'Hare, et al., 2000)와 일치하며, 본 연구가 제시한 첫번째와 두번째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리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우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유아

의 또래부적응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환경을 통해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또래관계에서 보다 유능감과 자신감을 보이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임연진, 2002; 박주희·이은혜, 2001)와 또래관계에서의 공격성이 어머니의 반응성 또는 강압성과 같은 양육행동특성과 관련된다는 연구(Hart, Nelson, Robinson, et al., 1998) 결과와 같이 양육행동-또래관계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녀의 또래관계 발달 간의 관계에 있어 가능한 경로로서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의 매개적 역할을 밝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본인의 보고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 등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어머니 변인을 통한 관계규명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가 보이는 또래관계의 부적응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행동이나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녀의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주장(Mistry, Lowe, Benner, et al., 2008)을 지지한다.

셋째, 유아의 가정환경은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유아가 보다 유리한 가정환경을 경험할 때,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초기 또래관계에서 공격성 및 위축이 덜 관찰되었다. 이는 Zimmerman, Glew, Christakis 등(2005)이 유아기에 가정환경에서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후 또래에게 배척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유아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 의 관계(Crnic & Greenberg, 1990) 또는 어머니 우울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또는 공격성과의 관계(Zahn-Waxler, Cummings, McKnew, et al., 1984)를 보다 구체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에게 존재하는 스트레스 및 정서적 문제가 자녀 양육에서의 참여도와 반응성(Gottman & Katz, 1989; Pettit, Clawson, Dodge, et al., 1996)에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일부 검증한 결과로서 기존 가족-또래 연계에 있어 가정환경의 중요성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구성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또래부적응 행동을 연결하는 개념적 모델을 지지하였다. 즉,

어머니의 우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가족심리적 요인과 양육행동이라는 사회화 과정, 그리고 긍정적인 가정환경이 유아기 자녀의 바람직한 정서표현과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공감능력 및 자기통제기술 등 다양한 발달적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영향을 미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 또는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으리라는 견해(Ladd & Pettit, 2002)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연구모형을 기존에 수집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하는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어머니-자녀 애착,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등 가족-또래 연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아동패널에 참가하고 있는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맥락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빈곤과 같은 가족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은 양육행동과 자녀발달에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로들의 강도와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또래 연계를 설명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제시된 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성이 양방향적이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이에 따른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받을 잠재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시간에 따른 상호호환적 관계는 종단적 연구설계 등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모교육이 아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경북일보, 2014년 8월 21일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양육스트레스 측정, 그리고 자녀의 기질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시에 어머니의 우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유아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예방을 강구할 수도 있다.

둘째,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 구성과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양육법에 관한 부모교육이 제공된다면, 생애 초기 대인관계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어머니 양육과 가정환경 등 유아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간접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어머니가 또래관계 형성을 돕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언어적으로 교육하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어린이집에서 유아기 또래관계의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사교육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유아기에 시작되는 또래관계 초기에 보이는 공격성과 위축과 같은 또래부적응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의 따돌림이나 품행장애 등을 예측하는 발달적인 행동특성이 될 수 있으므로, 생애 초기부터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또래관계가 주로 형성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갈등 해결책략 등은 유아기 공격성 또는 소극적 또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Hendrick & Weissman, 2010) 이에 대한 교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정환경과 더불어 보육환경 역시 유아 간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실내외 활동 및 휴식시간의 조합, 유아의 수 대비 여유 있는 교재와 교구 준비, 균형 있는 영양의 식사와 간식, 자연채광을 이용한 쾌적한 교실환경 등은 유아가 원만한 상호작용과 놀이를 하는데 기여하므로(Swim & Watson, 2010)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후속연구로서 유아의 다양한 발달특성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검증과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부적응행동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또는 상대에 대한 공감능력과 같은 사회성 발달의 척도를 연구모델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가족-또래 연계의 보다 구체적인 경로탐색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된 다양한 발달적 변인을 추후연구에서는 탐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종단적 접근이 요구된다. Renken 등 (1989)는 초등학교 시기의 또래 부적응 행동 중 공격성과 위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영유아기의 불안정 애착, 부모의 부적절하거나 적대적인 양육, 그리고 혼돈스러운 가정환경을 찾아내었다. 즉 생애초기 부모자녀관계와 가정환경이 또래유능성에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누적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국내에서도 후속 연구로서 유아기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과 이후 또래부적응, 특히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 문제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설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북일보 2014. 8. 21. 경산시,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 부모교육 실시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정미·곽금주(2007).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 자극 척도(EC-HOME)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1), 115-128.
- 김현지·전경아(2011).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73-299.
- 남궁령(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문혁준·김경은·서소정·성미영·안선희(2014). *유아발달*. 창지사. 서울
- 박성연·도현심·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박주희·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신숙재·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이영·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 - 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정운·장미경(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pp.113-124,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damakos, H., Ryan, K., Ullman, D., Pascoe, J., Diaz, R. & Chessare, J. (1986). Maternal social support as a predictor of mother-child stress and stimulation.

Child Abuse & Neglect, 10(4), 463-470.

- Bohlin, G., Hagekull, B., & Rydell, A. M. (2000). Attachment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9, 24-39.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Manual. Temple, AZ: Family & Human Dynamics Research Institute, Arizona State University.
- Carson, J. L., & Parke, R. D.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Jansen Yeh, E. A., et al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 Coleman, P. K. (2003). Perceptions of parent-child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2, 351-368.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Bornstein M (ed.), vol. 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243-267.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 Dionne, G., Tremblay, R.E., Boivin, M., Laplante, D., & Pérusse, D. (2003). Physical aggression and expressive vocabulary in 19-month-old twin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261-273.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endrich, N., Wamer, B.,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ersu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Gottman, J. M. & Katz, L.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and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y, D. F., Payne, A. & Chadwick, A. (2004), Peer relation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84-108.
- Hay, D. F., Castle, J., & Davies, L. (2000). Toddlers' use of force against familiar peers: A precursor of serious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1*, 457-467.
- Hendrick, J. & Weissman, P. (2010). *The Whole Child* (9th ed). Merrill: New Jersey.
- Kersh, J., Hedvat, T. T., Hauser Cram, P., & Warfield, M. E. (2006). The contribution of marital quality to the well being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12), 883-893.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add, G. W., & Pettit, G. S.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69-309.
- Lovejoy, M.C., Graczyk, P.A., O'Hare, E., & H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311-346.
- Michiels, D., Grietens, H., Onghena, P. & Kuppens, S. (2008).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28*, 522-540.

- Mistry, R. S., Lowe, E. D., Benner, A. D., & Chien, N. (2008). Expanding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sights From a Mixed Method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96-209.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ettit, G. S., Clawson, M., Dodge, K. A., and Bates, J. E. (1996).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ren's peer-rejected status: The role of child behavior, parent-child relations, and family ecology. *Merrill-Palmer Quarterly, 42*, 91-118.
- Renken, B., Egeland, B., Marvinney, D., Mangelsdorf, S. and Sroufe, L. A. (1989), Early Childhood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assive-Withdrawal in Earl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57*, 257-281.
- Russell, A., Pettit, G. S., & Mize, J. (1998). Horizontal qualiti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allels with and possible consequenc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8*, 313-35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Sauer, W. J., & Warland, R. (1982). Morale and life satisfaction. In D. J. Mangen & W. A. P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1,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 (pp. 195-24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wim, T.J., & Watson, L. (2010). *Infants and Toddlers: Curriculum and Teaching*, 7th ed. Belmont, CA: Wadsworth.
- Zahn-Waxler, C., Cummings, E. M., McKnew, D. H., and Radke-Yarrow, M. (1984). Altruism, agg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young children with a manic-depressive parent. *Child Development, 55*, 112-122.
- Zimmerman, F. J., Glew, G. M., Christakis, D. A., & Katon, W. (2005). Early cognitive stimulation, emotional support, and television watching as predictors of subsequent bullying among grade-school childre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9*(4), 384-388.

·논문접수 10월 23일 / 수정본 접수 11월 27일 / 게재 승인 12월 22일

·교신저자: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이메일 yechang@cau.ac.kr

Abstract

The rela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yle, and home environment and peer relationship of toddlers

Young Eun Chang

The present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yle, and home environment on toddlers' peer relationships. The study analyzed 800 families who participated Korean Child Panel Study the 4th wave and had data of teacher-rated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Mean age of the 800 children was 38.24 months old.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significantly predicted more social parenting style and richer home environment of the toddlers. When the child's home environment provided greater cognitive and language stimulation and sensitivity, the child was less likely to show aggression and withdrawal during peer relationship at child care settings. The direct path from parenting style to peer maladjustment behaviors was not significant. Rather, mothers' more social parenting style predicted better quality of home environment, which in turn, predicted less aggression and withdrawal in peer relationship among the toddlers. The results shed lights on the importance and need of parent-support program that can help mothers to alleviate depression and stress and improve self efficacy.

Key words: pee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yle, home environment